

# 왕인[王仁]

## 한일 문화 교류의 선구자



왕인

/ 전통문화포털(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) /

### 1 개요

왕인(王仁)은 백제시대의 학자이다. 왜(倭)에 『논어(論語)』와 『천자문(千字文)』을 전해 일본 유학의 아버지로 평가받는다. 일본에 가서 태자의 스승이 되었고, 문필을 전문으로 하는 씨족집단인 서수(書首)의 시조가 되었다. 그 외에도 백제의 기술과 공예 등 선진문물을 전파하여 아스카문화의 형성에 기여했다.

### 2 왕인 관련 기록의 검토

왕인과 관련된 기록은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, 『고사기(古史記)』와 『일본서기(日本書紀)』, 『속일본기(續日本記)』 등 일본 측 사료에서만 확인된다. 『고사기』에는 왕인을 화이길사(和邇吉師)라고도 기록하였는데, '왕인'과 '화이'가 일본어로 모두 '와니'라고 발음되므로 동일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. 그리고 왕인이 한 고조(漢 高祖)의 후손 중 하나인 왕구(王狗)의 손자라고 하여, 성이 왕(王)이고 이름이 인(仁)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. 그 외의 가계나 출생·사망 시기 등은 알 수 없다.

왕인 관련 기록에는 왕인이 왜국으로 오게 된 과정과 왜국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. 그 내용을 종합해서 왕인의 활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. 백제왕이 아직기(阿直岐)를 왜에 보내면서 말 2마리도 함께 보냈다. 천황은 아직기에게 말 사육을 담당하도록 했다. 아직기는 경전에도 뛰어나서 태자인 토도치랑자(菟道稚郎子)의 스승이 되었다. 천황이 아직기에게 본인을 능가하는 박사가 있다고 묻자, 아직기는 왕인을 추천했다. 천황은 백제에 사신을 보내 왕인을 왜로 초빙했다. **관련사료** 왕인은 그 다음 해에 『논어』 10권과 『천자문』 1권을 가지고 왜에 들어갔고, 아직기에 이어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. 왕인은 통달하지 못한 것이 없을 정도여서, 태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왕인에게 학문을 배웠다. **관련사료**

그러나 왕인의 활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색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. 대표적인 것이 『천자문』인데, 이것은 중국 남조의 양(梁) 무제(武帝, 재위 502~549) 시기에 편찬된 책이다. 왕인의 활동 시기로 추정되는 4세기보다 이후에 편찬된 책이다. 그러므로 왕인이 『천자문』을 가지고 왜에 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. 왕인이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는 것도 실제로는 선진적인 학문을 익힌 도래인(渡來人)이 태자를 개인적으로 가르치거나 정치적 자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. 일본에서 동궁학사(東宮學士)와 같이 태자 교육이 제도화되는 것은 율령관제(律令官制)